

2022년 2월 7일

친애하는 모두들,

어째서 설명하는 일은 늘 어려운 걸까요? 의미가 바뀌면 어찌죠? 의미는 항상 바뀌는걸요. 심지어 저는 거짓말을 일삼는대구요. 저 자신에게까지 말이죠. 매번 말을 꺼내고 나서야 스스로 거짓말쟁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? 그렇지만 제가 제 글을 쓰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그려주겠어요?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곤 웃기다고들 하던데, 전 작품을 만들 때 딱히 웃고 있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다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. 쪽팔리게도 그때 저는 오글거리는 문장들과 자기 연민에 잠겨있었거든요. 물론 감정적 분열에는 어느 정도 흥분이나 쾌락이 있기 마련이죠.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보다, 이 모든 것의 연극성, 퍼포먼스 그런 것들. 그러니까 개인의 패러디화라는 거예요. 여자애의 울음소리는 언제나 예술에 대해 말을 하죠. 저는 제 삶을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합니다. 마치 항의를 하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행동과도 같은 거죠. 아니, 우리 아빠는 절 꾸짖으실 때는 절대 제가 울게 허락하지 않으셨대구요. 운다는 게 제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? 예수님은 성경에서 딱 세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. 첫째로 세상의 추악함에서, 둘째로 아버지를 향해서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.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셔요. “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.”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. 그래요. 제가 왜곡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, 중요한 부분을 놓쳤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중요한 건, 이 모든 게 저에게만큼은 너무도 아름답고 매혹적이라는 거예요. 전 올바로 이해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대구요... 매번 실패하는 걸 어떻게 해... 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게 사실인걸요! 저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유대감을 느껴요!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면, 다른 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짊어지는 팝 아이돌, 혹은 비극적인 순교자, 안팎을 이어주는 다리인 셈이죠. 제가 감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랄 순 없지만,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궁극의 ‘잇걸’인 예수님을 그릴 순 있어요. 이건 철학이라기보다 유사 과학적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아 정말 유사 과학이라는 전공이 있거나 했다면 말이죠. 생각 자체는 훌륭해요. 잘 들어봐요... 유사 과학이라면, 과학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서도 저만의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? “fuck, marry, kill”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어봐요. 이거 정말 기발한 분류법이지 않나요. 내가 만든 거라면 좋았을 텐데... 결과적으로 마리아(Mary)는 신과 자고(fuck), 요셉과 결혼하고(marry), 예수를 죽이지(kill) 않았나요? 이 게임은 삶의 중요한 요구들을 너무 간단하게 묘사한다는 게 핵심이라구요. 제가 모든 걸 단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용서해주세요.. 삶에는 성(sex), 사랑(love), 죽음(death), 이 삼위일체적 분류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. 하지만, 모든 것에는 언제나 더 많은 모든 것이 있지 않던가요? 언제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대구요! 심지어 당신은 이 간단한 줄글로부터 저보다도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지도 몰라요.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, 제게 꼭 말씀해주세요...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... <3

당신들의 충실한,

이예신

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
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
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(히브리서 5:7)